전북도 국가예산확보 막바지 안간힘

송하진 지사, 정당별 대표 등 방문 지원 · 협조 요청

송하진 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조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방문, 2018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주요현안 및 사업을 설명했다.

이날 만난 당대표(추미애, 안철수, 홍준표)와 원내대표(김동철, 우원식), 여가위 법안소위 위원(정춘숙, 신보라) 등에게는 공통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구성,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주역이 건축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협소하고 이용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전주역사 전면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40억) 반영과,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122억) 반영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력, 시험노선 구간, 법령 마련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비(5억원) 반영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타면제와 새만금사업 시범지역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2018년 국비 146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에게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내부개발 가속화에 필요한 도로(새만금~전주, 동서·남북도로), 공항 등 SOC 구축과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남권 3개 시·도가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관광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활기반 계정으로 추진을 요구하는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새만금 상류 축산단지 잔류 오염원 제거를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왕궁 잔여축사 전량 매입 사업비(389억)와 새만금 잼버리 부지내 VR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e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10억) 반영을 건의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별 예산삭감 방지 및 증액 대응활동이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전북도는 국회 상주반 운영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거나 부족 반영된 핵심사업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도·시군·연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대법 판결

대법원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의 부인 박씨를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박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남편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고 최씨와는 남편 병원 진료를 이유로 친분을 쌓았다"며 "안 전 수석 등이 계속 특혜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데이

9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린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 데이'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직원들에게 나눠줄 가래떡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유기질비료 · 토양개량제 사업신청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2월 6일까지 2018년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지원은 내년도 공급대상 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2016년도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단가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kg/포당 국비 800~1,300원, 지방비 600원으로 1,400~1,900원을 지원받을 수있다.

도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의 적절한 사용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는 농업이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도시의 흉물 빈집… 보물로!

도, 연말까지 빈집 전수조사

전북도는 농어촌 및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흉물스런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016년 12월말 기준 9,064동이 있는 것으로 올 1월에 조사되었으며, 이는 도내의 총 단독주택 24만 4,363동의 3.7%를 차지하는 수치로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전북도에서는 2017년까지 2만9,148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의 빈집 발생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빈집 철거와 함께 상태가 양호하여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도 체계적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현황과 활용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읍·면·동별로 빈집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도에서는 2018년도 빈집정비사업,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의 소유자가 자진철거시 철거비용을 실비수준(동당 100~250만원)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은 2015년부터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시 보수비용의 일부(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새로운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대책으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전북도에서 6개 시(전주,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에 도심지역 빈집을 주민 등이 이용가능한 쉐어하우스 및 주차장, 쉼터, 텃밭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의 공동화로 인하여 침체된 구도심지역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빈집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도민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만일사 비' 도 유형문화재 지정

순창지역 불교문화 향토사연구 중요도 인정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고추장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순창 만일사 비(淳昌 萬日寺 碑)'가 최근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51호로 지정 고시됐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만일사 비'에는 17세기 중엽 한 때 '전라도'가 '전남도(全南道)'로 개칭되었던 것, 회문산 내에 산성과 군진(軍陣)이 있었던 것, 무학대사가 중창한 사적 등이 새겨져 있어 조선시대 순창지역 불교문화와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의결로 유형문화재로 최종 지정됐다.

만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의 말사로 구림면 안정리 회문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만일사 비'와 1760년(영조 36년)에 간행된 '옥천군지(玉川郡誌)'에 의하면 백제시대에 건립된 천년고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1988년 전통사찰 제65호로 지정되었다.

순창군 관계자는 "금번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비석의 역사적 가치가 입증된 만큼 사찰측과 협력하여 유지관리와 향후 보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